



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소폭 하락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말 국내은행의 「바젤Ⅱ」기준 BIS자기자본비율¹⁾은 13.83%로 전분기 말 대비 0.05%p 하락하였으며, Tier1비율²⁾도 11.02%로 0.03%p 하락함.

- 자기자본은 농협은행의 대손준비금 9,000억 원 일시 전입에도 불구하고 2조 2,000억 원의 당기순 이익과 8,000억 원의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 등으로 2조 3,000억 원 증가함.
- 그러나 위험가중자산은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출 확대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이 21조 2,000억 원 늘어남에 따라 21조 3,000억 원 증가함.
- 일부 전문가들은 BIS자기자본비율과 Tier1비율이 모두 2011년 6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함.

〈그림 1〉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및 Tier1비율



자료: 금감원 보도자료.

- 1)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.
- 2) 기본자기자본(Tier1)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.

■ 금감원은 6월 말 국내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과 Tier1비율이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외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자본적정성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임.

- 국내은행 BIS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은행(11.95%) · 수출입은행(11.35%) · 전북은행(11.69%)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12%를 초과하였으며, Tier1비율도 수협(7.13%) · 전북은행(7.67%)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9%를 초과함.
- 그러나 유로존 재정위기, 신흥국 성장 둔화에 따른 국내경기 악화 등에 대한 우려와 「바젤Ⅲ」 자본규제, 「D-SIB 규제체계 권고안³⁾」 등 지속적인 자본규제 강화 논의가 존재하고 있어 향후 국내은행들의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.

(2012년 6월 말 국내은행의 BIS 현황, 금감원, 8/27)

3)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는 2012년 6월 29일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(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: D-SIB) 부도가 국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'12개 기본원칙'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D-SIB 규제체계 권고안」을 마련함.